

국제 물 법규의 개척자 스티븐 맥케프리, 2017 년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

(스톡홀름 2017 년 3 월 22 일 PRNewswire=연합뉴스) 미국의스티븐 맥케프리(Stephen McCaffrey) 교수가 국제 물 법규(international water law)의 진화와 점진적인 실현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Stockholm Water Prize)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퍼시픽 대학(University of the Pacific) 맥조지 로스쿨의 저명한 법학과 교수인스티븐 맥케프리는 국제 물 법령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위자다. 그는 학계, 법조계 및 정책입안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공동 해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상자 발표 소식을 접한 맥케프리 교수는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며, 동시에 겸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의 업적 위에서 시작하며, 그런 면에서 이 분야 선배들에게 가장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선정위원회는 선정 소감에서 “국제 물 법규 분야에서 맥케프리 교수의 선구적인 리더십과 법적 리더십을 높이 산다”면서 “그는 협약 협상에 관한 중대한 저서 “국제 수로 법(‘The Law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을 포함한 중요한 학문적 성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현명한 조언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협상 중재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맥케프리 교수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남미의 수로를 포함해 국제 수로와 관련된 여러 협상에서 여러 국가에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그는 국경지역에 위치하여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민물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갈등을 눈앞에서 체험했지만, 민물 자원이 일반적으로 갈등이 아닌 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여전히 낙관주의자로 남아 있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의 소장 토그니 홀름그렌(Torgny Holmgren)은 “국경 간 물 관리, 물 법규 또는 물 외교 분야에서 공부, 연구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법적 개념과 원칙의 개념 및 실용적 완성에 대한 맥케프리 교수의 기여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2017 년 세계 물 주간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중 8 월 30 일 왕립 시상식에서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후원하는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 세가 맥케프리 교수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수상자에 관한 추가 정보: <http://www.siwi.org/swp2017>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WImedia>
- 트위터: https://twitter.com/siwi_water 해시태그: #StockholmWaterPrize

보도자료 문의

Rowena Barber, SIWI, +46-8-1213-6039

rowena.barber@siwi.org

출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